

# 시민 고유가 부담 완화 · 민생 안정 집중 투자

### 전주시,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경예산안 1069억원 규모 긴급 편성... 제430회 전주시의회 심의 · 확정 후 집행 추진

전주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총 106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물가 부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생과 기업·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추경

에 발맞춰 정부 추경에 포함된 신규·확대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2026년 총 예산 규모는 2조 7955억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98%(1069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교부세 167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902억 원 등 총 1069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으며, 세출은 시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 열리는 '제4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긴급급을 요하는 일포인트 추경예산안 이 시의회 심의 후 신속히 집행돼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고소득 · 전문직 체납자 172명 특별 관리한다

### 전주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선별해 총 18억200만원 특별징수 착수

전주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 172명을 선별해, 총 18억2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에 착수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했으며, 의료인과 금융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급여 압류의 경우 급여 총액 중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 압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압류가 가능하다. 시는 5월 중 대상자를 상대로 압류 예고 통지를 주소지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6월부터는 제3차 무자인 직장에 급여 압류를 통보해 본격적인 추심에 나설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독서대전' 북마켓 참여단체 모집

### 전국 서점 · 책방 · 출판사 대상 6월 5일까지 신청 접수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독서 출판 문화축제인 '제9회 전주독서대전'이 전국의 출판사와 서점, 책방 등의 참여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된다. 전주시는 오는 6월 5일까지 '제9회 전주독서대전'에 참여할 북마켓 운영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제9회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북마켓 운영 단체는 전주독서대전 현장에서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를 10% 할인해 판매하게 되며, 시는 전국의 서점과 책방, 출판사를 대상으로 총 13개 운영 단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참가 조건은 △행사 기간 10% 할인 판매 △단순 판매 업체 지원 불가(학습지나 교구 등) △5종 이상의 출판물 발간(1인 출판사 및 독립 출판사의 경우) 등이다. 참가 단체에는 부스 시설과 함께 독서 체험 행사 프로그램 또는 소규모 작가 강연 운영비로 최대 25만 원이

제공된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단순 도서 판매 부스로 참가할 수도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 5일까지 누리집에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15일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9회 전주독서대전' 북마켓 참여 단체 모집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30-1843)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섭 전주시 도시관광생태문화본부장은 "전주독서대전은 출판, 서점, 문화, 교육계 등이 협력해 함께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축제"라며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하는 책 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서점, 책방 및 출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보건소, 하천 · 공원 집중 방역소독 나서

전주시가 여름철을 앞두고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등 위생해충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돌입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야외 활동 증가 및 해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 불편 해소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천 주변과 공원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방역기동반(2팀 4명)과 방역소독차량을 편성해 전주천과 삼천천 주변 산책로, 도심 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수변환경 특성상 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주천과 삼천천 일대에 대해서는 방역반을 활용해 정기 방역과 수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는 또 여름철 해충 발생 증가에 대비해 포충기 337대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8대를 사전점검을 거쳐 전면 가동함으로써 공원 및 산책로 이용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방역은 모기 살충에 효과적인 초미립자 연무 소독과 환경오염 우려가 적고 인체에 저해한 친환경 유충구제 약품 살포 등으로 이뤄지며, 시는 위생 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집중 방역해 발생원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여름철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시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거주지 주변의 고인 물 제거 등 해충 서식지 차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해피마인드는 지난 9일 참여형 토크콘서트인 '내 마음의 시그널'의 공연 수익금 100만 원을 전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 공연 · 기부로 위로 · 희망 전달

### 해피마인드, 내 마음의시그널 전주 공연 수익금 100만원 기부

해피마인드(신정희 대표)는 지난 9일 참여형 토크콘서트인 '내 마음의 시그널'의 공연 수익금 100만 원을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 공연의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주지역 취약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내 마음의 시그널' 토크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이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기반의 심리 소통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진 이번 전주 공연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초청해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신정희 해피마인드 대표는 "이번 공연과 기부가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마음 건강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내 마음의 시그널' 공연 관객자와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전달 받은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학교밖 청소년 학업 지원 결산... 검정고시 125명 합격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전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125명 중 125명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 꿈드림은 대학생·학교 밖 청소년 교육협력 지원사업인 '장원급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성적 향상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개인 학습 수준에 맞춘 1:1 개인멘토링 △자기주도 소그룹 멘토링 △진로상담 및 컨설팅 △온라인 강의 지원 △검정고시 모의고사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 의욕을 높였다. /권희성 기자

장원급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교 밖 청소년은 "솔직히 자신도 없고 막막했는데 좋은 멘토 선생님을 만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다"면서 "검정고시 합격도 기쁘지만,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이 더 뿌듯하다. 이제는 조금 더 훌쩍바른 마음으로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멘토 선생님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성공 경험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볼 때면 늘 가슴 벅차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설계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